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문학 활동과 문학담론*

최 미 진**

차 례

- | | |
|-------------------------|---------------------|
| 1. 한국전쟁과 『주간국제』 | 1) 반공국가주의와 전쟁문학 |
| 2. 『주간국제』의 편집전략과 문학배치 | 2) 단편소설과 창작태도의 답습 |
| 1) 대중적 문화전략과 문학작품 | 3) 후반기동인과 모더니즘 시운동 |
| 2) 문학배치와 참여 문인들 | 4) 부상하는 신인·독자와 순수문학 |
| 3. 『주간국제』 소재 문학작품과 문학담론 | 5. 『주간국제』의 성과와 과제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매체전략에 대응하는 문학 활동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문학담론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주간국제』의 대중적 문화전략의 핵심 분야는 문학이었다. 한국전쟁기 출판물의 중심에 여전히 문학이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주간국제』의 편집진이 문인이라는 점과 독자대중의 요구가 적지 않았던 점이 뒷받침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35525).

** 부산대학교 강사

하고 있었다. 창간호부터 제15호까지 『주간국제』에 게재된 문학작품은 총 73편이며, 『국제신보』 광고에 기대 제18호까지 확대하면 총 78편에 달했다. 문학란에는 문총의 핵심세력, 원로 문인들, 문인언론인, 후반기 동인, 신인과 독자 등 피난문단의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주간국제』의 소재 문학작품은 피난문단의 다양한 문학담론을 전경화하였다. 첫째, 반공국가주의에 준한 전쟁문학으로 반공문학담론을 양산하고 있었다. 반공이데올로기 선전전에 복무하는 전쟁시도 있었지만, 『주간국제』가 강제포로소환문제를 쟁점화한 수기집을 기획·발간하여 반공국가주의에 유리한 공론장을 구축하고 있었다. 둘째, 『주간국제』의 소설계는 기성의 창작태도를 답습하며 피난사회와 삶의 단면을 묘파하는 수준에 그쳤다. 작가의 비판정신을 찾기 힘들만큼 반공과 냉전의 금제 속에 순수문학의 제도화 파장을 정면에서 보여주었다. 셋째, 후반기 동인은 피난문단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모더니즘 이론의 소개와 창작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넷째, 신인과 문학지망생 독자들은 피난문단의 활성화된 동인지활동과 연동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런 데도 순수문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주간국제』는 피난문단의 지형과 변화를 다양하게 담아내고 이끌어갔던 매체였다. 문예지와 달리 시사종합주간지로서 피난문단의 여러 국면을 포괄하기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주간국제』의 문학란은 독자적 문화적 지형을 창출하며 한국전쟁기 피난문단의 문학 활동과 문학담론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었다 하겠다.

주제어: 한국전쟁기, 주간국제, 국제신보, 문학담론, 피난문단, 반공국가주의, 모더니즘문학, 순수문학

1. 한국전쟁과 『주간국제』

필자는 한국전쟁기 피난지 부산에서 발간된 『주간국제』 창간호부터 제15호까지 발굴하여 매체지향과 매체전략을 고찰한 바 있다. 『주간국제』는 1952년 1월 12일 창간호를 발간한 뒤 이듬해 1월 31일 제18호를 내놓고 소리 없이 중단되었다. 발행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1년 넘게 버텨낸 ‘시사종합주간지’였다. 『주간국제』의 창간은 국제신문사의 공격적 매체연쇄전략의 산물이었다. 격변하는 전쟁 상황과 고조되는 환도 분위기가 맞물리던 피난수도 부산에서 『국제신문』은 선두적 지역지에서 중앙 일간지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로 『주간국제』 창간을 선택했다. 『주간국제』의 매체지향은 냉전적 반공주의 레짐 속에서 비판적 저널리즘에 두었다. 전시언론 통제정책과 위정자의 압력에도 야당지를 고수했던 『국제신문』의 지향이 『주간국제』에도 이어졌던 것이다.¹⁾

그러나 여기에 있어 한 가지 요청하여 둘 것은 신문이란 결코 신문인 자체가 독자적 입장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신문을 애독하는 독자가 제작하는 것이며, 다만 신문인은 독자를 위하여 제작기술을 제공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써 독자 제위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부단히 제시하여 주심과 동시에 보다 더 냉정한 비판과 편달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²⁾

『주간국제』가 지향한 비판적 저널리즘은 엘리트주의에 기반 하지 않는다. 인용문에서 보듯 국제신문사는 신문매체의 주체가 신문인뿐 아니라 “독자 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념사는 성과에 대한 상찬보다 겸허한 자기반성에 가까운데, 그것은 “신문인 자체의 독자적 입장”을 강

1) 최미진,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발간과 매체전략』, 『로컬리티 인문학』 제25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207~208쪽.

2) 이연재, 『본지 창간 5주년에 제하여』, 『국제신문』, 1952.9.1, 1면.

조하는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직시한 것이다. “민주언론의 창달”에 걸맞은 “독자 제위”를 ‘민주’의 실질적 주체로 내세우며 의견의 공유와 연대를 꾀한다.³⁾ 근대 신문매체는 서로 다른 장소와 지위에 있는 동시대인에게 인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인식을 전파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제공한다. 그런 인민주체로 하여금 사회 현안에 대한 공통 의견을 도출하는 공론장 형성에 조력한다.⁴⁾ 인용문은 『국제신보』가 이러한 신문매체의 역할에 주목한 결과이며,⁵⁾ 『주간국제』의 비판적 저널리즘이라는 매체지향 또한 인민주의⁶⁾에 무게를 둔다. 그것이 『주간국제』의 매체전략, 즉 비판적 저널리즘 강화전략과 대중적 문화전략으로 드러난다.

이 자리에서는 『주간국제』가 한국전쟁기 부산지역에 형성된 매체환경과 문학적 대응을 오롯이 보여주는 매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임시수도 부산은 피난으로 인한 인적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매체활동이 전개되었다. 부산 피난문단은 1·4 후퇴 후 문총본부를 비롯해 부산에 대거 유입된 피난문인들과 토박이 문인들이 자리매김하였다.⁷⁾ 이러한 피난문단의 형성과 함께 대규모 출판문화제도의 유입은 여러 매체의 생산과 향유로

3) 창립 4주년 기념사에도 반엘리트주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대중과 더불어서 국민대중의 생활 속에서 존재하여 움직일지언정 국민대중 앞에 서고 싶지도 또는 그 옆에 서고 싶지도 않으며 또한 서지도 않을 것이다.” 이 연재, 『창간 4주년에 제하여』, 『국제신보』, 1951.9.2, 1면.

4) 찰스 테일러, 이상길 옮김,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1, 135~153쪽.

5) 오히려 1950년대 신문매체는 여론정치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던 만큼 엘리트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론장의 현실은 국가주의와 신식민성에 노출된 채 이익창출에 몰두하는 등 엘리트주의의 부정적 면면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최미진, 『매체 지형의 변화와 신문소설의 위상(2)』,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200~201쪽 참조.

6) 인민주의는 인민주권주의에 근간한다. 이 글에서는 인민주의를 대중주의 혹은 포폴리즘이 내장한 부정적 의미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7) 이순욱, 『한국전쟁기 피란지 부산과 전시문학담론』, 『항도부산』 제41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123~124쪽.

이어졌다.

항구도시의 특성상 서적도매상에 비중을 두었던 부산의 출판환경은 한국전쟁기에 더욱 활성화된다. 유통계의 거목 삼협문화사와 대한도서 판매주식회사가 부산에 자리했을 뿐 아니라⁸⁾ 지역서점에서 총판으로 거듭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대표적 일례로 세계서림은 교과서 도매서점에서 1951년 11월 당시 10대 잡지, 즉 “희망, 문예, 신소년, 법정, 정경, 자유평론, 대중과학, 학생과 과학, 어린이과학, 시대과학, 법률신문”⁹⁾의 총판을 시작했다.¹⁰⁾ 이 시기 문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잡지들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52년 10월 희망사 주도로 한국잡지협회가 창립되었을 만큼¹¹⁾ 피난수도 부산은 출판사의 규모도 급격히 성장해 있었다. 이 시기 『국제신보』의 광고란은 이들 잡지매체들의 소개에 상당한 지면을 제공하고 있다. 순문예지 『신조』와 『문예』,¹²⁾ 『문화세계』,

8) 삼협문화사는 1949년, 대한도서판매주식회사는 1951년에 각각 창립되었다. 최대원, 『아침 8시면 북적대는 대청동 도매골목-피난시절의 옛 명성 부활 꿈꾸는 부산지역 서적도매상』, 『출판저널』 제93집, 대한출판문화협회, 1991, 6쪽.

9) 『희망』은 월간 종합 대중잡지로 1951년 7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1962년 3월 통권 88호로 중단되었다. 『문예』는 순문예지로 1949년 8월 창간되어 전시에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다 1954년 3월 통권 21호로 중단되었다. 『법정(法政)』은 1946년 9월 창간된 월간 법률연구지로 1970년 12월 중단되었다. 『정경(政經)』은 한국정경학회가 발행한 잡지로 제2호는 1951년 12월 송년호였다. 『자유평론』은 구국총력연맹에서 발간한 월간 정치잡지로 1951년 9월 창간되었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1일 변호사 최대용이 창간한 법조계 주간신문이다. 이외 잡지들은 현재 문헌이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10) 『세계서림 십대잡지 총판개시』, 『국제신보』, 1951.11.8, 2면.

11) 1952년 4월 28일 월간 『희망』을 발간하던 희망사가 출판사 등록을 완료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20일 한국잡지협회가 부산의 희망사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엄동섭, 『잡지 출판인 김종완 연보』, 『근대서지』 제9호, 근대서지학회, 2014, 122~124쪽.

12) 『문예』는 제12호(1950.12)를 서울에서 발행해 부산에서 배포한 후 제13호(1952.1)를 내놓기까지 발간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신보』 광고는 1951년 7월 『팜팜랫 현대문학』이 문예사 발행, 세계서림 총판으로 발행된 사실을 보여준다. 주요 목차는 창작, 평론, 상호비평, 수필, 시, 사에라로 나누어져 있다. 창작에는 황순원의 『고양이』, 김동리의 『감나무』, 김말봉의 『위문품』, 김광주의 『武器』, 평론

종합잡지 『신사조』와 『신천지』, 『신생공론』,¹³⁾ 대중잡지 『희망』과 『신태양』, 여성지 『여성계』, 어린이잡지 『새벗』과 『파랑새』, 『어린이 다이제스트』, 교육지 『다이제스트(국문판)』와 중고생 영어잡지 『스튜덴츠 다이제스트』,¹⁴⁾ 학술지 『전시과학』¹⁵⁾과 『사상』, 『정경』, 정치종합지 『자유세계』¹⁶⁾와 『자유평론』 등의 창간호와 속간호, (부)정기 발간소식을 알리고 있다.¹⁷⁾ 이처럼 피난수도 부산은 급속도로 출판·유통계를 주름잡으며 전시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시사종합주간지를 표방한 『주간국제』는 한국전쟁기 역사적 격변의 역동성과 편폭 전반을 수렴하는 가운데 매체와 문화, 그리고 문학의 상호

에는 손우성의 「지-드의 주관세계」, 조연현의 「求愛에의 의지」, 유담의 「최정희론」, 상호비평에는 손소희와 한말숙, 박용구와 허윤석의 작가론, 수필에는 김윤희의 「생명의 절규」, 계몽목의 「여인」, 서정대의 「전선으로 가는 길」, 노천명의 「와일드 로우즈」, 시에는 모윤숙의 「군복 짓는 여인」, 서정주의 「하늘 아래에서」, 김윤성의 「다대포시초」, 사에라는 김환기의 「화가」, 김종문의 「자화상」, 임금재의 「병자의嘆」, 김송의 「유아독존」, 안수길의 「어깨」, 오영수의 「가옥이」, 정비석의 「전쟁과 문학」, 양명문의 「오테세이」, 이선구의 「척도」, 조병화의 「장미」, 허백년의 「무제」, 이주홍의 「작가의 중량」, 강학중의 「농촌에서」가 각각 실려 있다. 「팝푸렛 현대문학」, 『국제신보』, 1951.7.15, 1면.

- 13) 『신생공론』은 1951년 10월 창간된 월간 종합잡지로 신생공론사에서 발행하였다. 「신생공론(新生公論)」은 국난 극복을 위해 “민족공동생활의 토대”를 새롭게 건설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창간사」, 『신생공론』 창간호, 신생공론사, 1951.10.
- 14) 『스튜덴츠 다이제스트』는 1953년 7월 창간된 “중·고등 학생들의 영어취미잡지”로 민교사에서 발행하였다. 「스튜덴츠 다이제스트」, 『국제신보』, 1953.7.5, 1면.
- 15) 『전시과학』은 1951년 9월 전시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한 과학 전문잡지이다. “학계 권위를 총망라한 전시학술거지(戰時學術巨誌)”로 소개되었으며 세계서점에서 총판을 담당했다. 「전시과학 출현!!」, 『국제신보』, 1951.8.26, 2면.
- 16) 『자유세계』는 1952년 1월 창간된 월간 정치종합지다. 발행인 조병욱, 편집인 임금재로 흥문사에서 발행하였으며, 1953년 6월 중단되었다.
- 17) 『국제신보』 1951년 1월 1일부터 1953년 8월 31일까지 잡지매체 광고들에 기반하여 주요 잡지들만 간추려 제시한 것이다. 대부분 창간호와 속간호 광고에 힘썼으며 여러 성향의 월간지들은 발매 소식이 간헐적이었다. 가장 꾸준하고 비중 있게 광고를 실은 것은 희망사 간행 잡지들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국제신보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관계를 선명하게 구현하는 매체이다. 특히 대중적 문화전략과 연동하여 피난수도 부산의 문화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적잖은 문학적 자산을 내장한 『주간국제』가 피난문단과 긴밀하게 연동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때 주간지의 특성에 걸맞은 독자적인 문화적 지형을 형성하면서 한국전쟁기 문학 활동을 새롭게 의미화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국전쟁기 문학연구는 전후 문학에 비해 풍성하지 않지만 활발히 진행 중이다. 관변적인 선전문학으로 치부되었던 이 시기 문학연구는 최근 다양한 매체의 발굴과 재조명으로 일신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전쟁기 대표적 매체, 즉 『문예』와 『전선문학』을 포괄한 논의¹⁸⁾를 확대·심화시켜 전쟁기 전반을 유의미하게 접근하거나¹⁹⁾ 피난문단 재편의 이면을 분석해내고 있다.²⁰⁾ 아울러 『문예』를 비롯한 『신천지』, 『신조』, 『주간문학예술』, 『문화세계』 등 문예지,²¹⁾ 중군작가단의 기관지를 출발점으로 정훈잡지와 전시독본,²²⁾ 『희망』과 『신태양』 등의 대중잡지,²³⁾ 지역문단과

-
- 18) 조남현, 『한국전시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11~49쪽.
- 19)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신정은, 『한국전쟁기 남북한 문학담론 기원 연구』, 『한국비평문학회』 제73집, 한국비평문학회, 2019.
- 20)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호, 동남어문학회, 2007.; 이순욱, 『한국전쟁기 피난지 부산과 전시문학담론』, 『항도부산』 제41호,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21.; 채희성, 『한국전쟁기 대구 문단 연구』, 『사람의 문학』 2005년 봄호.
- 21) 이봉범,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 제17권, 상허학회, 2006.; 이봉범, 『잡지 『신천지』의 매체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제39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0.; 김준현, 『한국전쟁기 문인들의 전쟁인식과 문예지』,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8집, 한국근대문학회, 2013.; 나보령, 『피난지 부산에서 창간된 문예지 『신조』 해제』, 『근대서지』 제19권, 근대서지학회, 2019.; 백영근, 『주간문학예술』고, 『논문집』 제41·42집, 서울산업대, 1995.; 김준현, 『한국전쟁기 잡지 『문화세계』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40권, 우리문학회, 2013.; 손혜민, 『잡지 『문화세계』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9집, 한국근대문학회, 2014.
- 22) 신영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신영덕,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박태일, 『목포지역 정훈매체 『전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8

문학매체²⁴⁾ 등의 연구가 함께 잇달아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전쟁기 문학 장(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 글은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매체전략에 대응하는 문학 활동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문학담론의 특성을 규명하는

-
- 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박태일, 「전쟁기 국방부 정훈잡지 『국방』의 정훈 문학」, 『근대서지』 제7호, 근대서지학회, 2013.; 박태일, 「정훈매체 『광창』과 오영수의 종군기」, 『근대서지』 제20호, 근대서지학회, 2019.; 이동순, 「해군목포경비부의 정훈잡지 『갈매기』 발굴의 의미」, 『근대서지』 제8호, 근대서지학회, 2013.; 나민애, 「공군기관지 『코메트』의 문학사적 의미와 가치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2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이순옥,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제58집, 한국문학회, 2011.; 이순옥,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한국문학논총』 제66집, 한국문학회, 2014.; 박형준, 「『전시생활』의 전사자 승배전략과 문화정치」, 『한민족문화연구』 제71권, 한민족문화학회, 2020.
- 23)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5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제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최미진, 「『주간희망』의 도전과 매체전략」,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 24) 이동순, 「한국전쟁기 순문예지 『신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이동순, 「시전문지 『시정신』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93집, 한국언어문학회, 2015.; 최명표, 「한국전쟁기 전북지역매체와 문학」, 『영주어문』 제19권, 영주어문학회, 2010.; 김현정, 「1950년대 대전 시문학의 양상」, 『영주어문』 제37집, 영주어문학회, 2017.; 김동윤, 「전란기의 제주문학과 『제주신보』」, 『영주어문』 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박태일, 「1950년대 전쟁기문학과 제주의 지역성」, 『한국언어문학』 제7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박태일, 「전쟁기 경상북도 기관지 『도정월보』의 콩소설」, 『한국지역문학연구』 제3권 2호, 한국지역문학회, 2014.; 박태일, 「전쟁기 강원지역 시동인지 『청포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8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송창우, 「전쟁기 부산이 낳은 동인지 『신작품』」, 『지역문학연구』 제6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0.; 이순옥,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시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이순옥,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과 동인지」, 『영주어문』 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한정호, 「한국전쟁기 마산의 문학매체와 『낙타』」, 『인문논총』 제29권,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한정호, 「한국전쟁기 진주의 학생 동인지 『군상』」, 『한국지역문학연구』 제8권 2호, 한국지역문학회, 2019.

데 목표를 둔다. 이때 『주간국제』 창간호부터 제15호까지 발굴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삼으며, 필요한 경우 『국제신보』를 참조하고자 한다.²⁵⁾ 비록 매체의 온전한 확보는 어렵겠지만,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문학 자료 발굴과 문학 연구는 기존의 관점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주간국제』의 편집전략과 문학배치

1) 대중적 문화전략의 강화와 문학작품

한국전쟁기 『주간국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제반 문제를 포괄하는 시사종합주간지이다. 매체지향을 비판적 저널리즘에 두었던 『주간국제』는 편집전략으로 비판적 저널리즘 강화전략과 대중적 문화전략을 활용하였다. 창간 당시 『주간국제』는 비판적 저널리즘 강화전략에 더 비중을 두었는데, 그것은 급변하는 전황과 가파른 정국, 피난지 일상사 등 당면한 시사문제에 대한 독자대중의 궁금증 해결에 힘을 실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대중적 문화전략에도 6:3 정도로 일정한 안배를 하면서

25)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발행일은 아래 표와 같다.

호수	발행일	호수	발행일	호수	발행일
1	1952.01.12.	7	1952.05.08.	13	1952.09.27.
2	1952.01.24.	8	1952.05.27.	14	1952.10.20.
3	1952.02.15.	9	1952.06.16.	15	1952.11.20.
4	1952.03.31.	10	1952.07.15.	16	1952.12.25.
5	1952.04.13.	11	1952.08.18.	17	1953.01.15.
6	1952.04.26.	12	1952.09.05.	18	1953.01.31.

창간호부터 제15호까지는 『주간국제』를 토대로 삼았으나,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국제신보』 광고자료에 따른다. 이때 발행일은 필자가 서기(西紀)로 고쳐 읽기 쉽게 제시하였다. 최미진, 앞의 글, 2021, 214쪽 참조.

그러한 흐름을 한동안 이어갔다. 하지만 제9호 문예특집호를 기점으로 편집전략의 중심축이 급변한다. 이때 대중적 문화전략은 문학을 앞세워 힘을 실었고, 제15호까지도 정도만 완화되었을 뿐 중심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중적 문화전략으로의 급선회 계기는 1952년 5월 부산정치파동의 영향을 간과하기 힘들다. 당시 『국제신보』에 게재된 사설 문제로 위정자의 압력이 가중되었던 상황이었고, 『주간국제』에도 편집 책임자의 실질적 변화까지 초래했다. 『국제신보』 편집부국장이자 『주간국제』의 편집인 김한성은 제9호부터 편집후기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주간부장이진섭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제13호부터 편집인이 『국제신보』 편집국장 장수봉으로 교체되었고, 대중적 문화전략에 더 비중을 두며 본격적인 변혁을 시도하였다.²⁶⁾

『주간국제』에서 대중적 문화전략의 핵심 분야는 문학이다. 창간 이후 문학작품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고, 제15호까지 문화면에서 53%를 차지한다. 전체 기사에서 문학의 비중은 창간호가 12.5%에 그쳤지만, 제9호는 77%, 그 후 제15호까지 41%를 차지한다. 제5호와 제9호에서 증면을 단행하여 발행면수가 20면에서 34면, 36면으로 각각 늘어나고, 제9호를 기점으로 대중적 문화전략이 대폭 강화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문학이 전체 기사에서나 문화면에서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문학이 대중적 문화전략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주간국제』의 편집진이 문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부산 피난문단의 지형을 빠르게 간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문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문인들을 폭넓게 섭외하고 문학작품을 꾸준하게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편집인 김한성은 부산지역 언론인인 동시에 만화가 김일소이다. 만화가로서 그는 『국제

26) 최미진, 앞의 글, 2021, 215~216쪽과 226~227쪽 참조.

신보』의 신문만화와 만평을 담당하면서²⁷⁾ 『주간국제』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대구에서 속간된 『만화신문』에도 참여한 바 있다.²⁸⁾ 그리고 주간부장 이진섭은 언론인이자 번역가,²⁹⁾ 방송작가이자 수필가이다. 1946년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출발하여 1949년부터 『서울신문』 주간부 기자로 활동했다. 1951년 부산으로 피난 온 그는 『국제신보』 문화부 차장을 거쳐 1952년 3월부터 『주간국제』 주간부장을 지냈다.³⁰⁾ 이 시기 문학작품을 실지 않았지만 『주간국제』의 편집체제를 총괄하며 『주간서울』에 비견되는 문화면 확대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 9호 ‘문예특집호’를 기획하며 후반기동인의 ‘노트’를 집필했다. 뒤이어 ‘학생특집’³¹⁾도 기획하는 등 『주간국제』의 문학 분야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을 실었다.³²⁾

『국제신보』에 재직했던 문인들도 『주간국제』의 편집진들과 함께 문학 분야에 상당한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제신보』에 재직했던 문인은 시인 김상화와 아동문학가 한정동 정도만 확인되지만 특파원이

27) 김일소는 『산업신문』의 첫 연재물로 1950년 5월 4일부터 만화 「허풍선」에 이어 5월 16일부터 「신과 흥부전」을 연재하였다. 『국제신보』에는 1951년 1월 6일부터 연재만화 「미스코리아」, 4월 28일부터 「이웃사촌」, 10월 1일부터 「폭탄선생」을 각각 연재하였다. 특히 「폭탄선생」은 『국제신보』의 첫 연재소설 정비석의 『인생 화첩』과 동시에 연재되었다. 『국제신보』에서 연재소설이 실리면서 오랫동안 김일소의 연재만화는 자취를 감추었다.

28) 손상익, 「한국 신문시사만화사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5, 204쪽.

29) 이진섭은 번역서 『내가 본 중국』(에드워드 한터 저, 이진섭 역, 세계평론사)을 간행했고, 그것은 『주간국제』 제10호와 제13호에서 광고되기도 했다.

30) 이진섭은 1952년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간부장을 맡았고, 1952년 11월 10일부터 1953년 3월 31일까지 『국제신보』 문화부장을 역임하였다. 국제신문사 사사편찬실 편, 『국제신문오십년사』, 국제신문사, 1997, 656~657쪽.

31) 『주간국제』는 제9호 ‘문예특집호’에 이어 제10호에서 ‘학생특집’을 기획 중임을 밝히고 원고를 모집하였다. 분야는 “시, 평론(200자 30매), 단편소설(200자 30매)”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투고를 독려하고 있었다. 「학생투고환영」, 『주간국제』 제10호, 1952.7.15, 34쪽. 하지만 이후 『주간국제』에서 ‘학생문예특집’은 마련되지 않았다.

32) 이 외에도 “편집부원”들이 있었으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기 힘들다.

나 자유문필가로 활동하거나 십시일반으로 조력한 문인들도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신보사에 구축된 인적 인프라가 피난문단과 연동하여 『주간국제』의 문학관 강화를 수월하게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에 대한 독자대중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간국제』의 독자층을 정확하게 밝힌 자료는 부재하지만, 일부뿐이나 마 『편집후기』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편집후기』에 따르면 『주간국제』는 계속되는 발행주기의 지연에도 “부수가 배로 늘어가고”³³⁾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주문이 쇄도(殺到)”³⁴⁾ 하고 하였다. 그러나 “너무 딱딱하다”³⁵⁾는 독자대중의 평가가 많았던지 편집진은 “자미있고 즐길 수 있는 내용”³⁶⁾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제9호 ‘문예특집호’는 “초하문예결산”이라는 편집진의 의도³⁷⁾와 그간의 독자대중의 요구가 들어맞은 기획이었다. 그만큼 독자대중의 취향이 많은 부분 문학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이에 『주간국제』는 제13호부터 ‘독자문예란’ 코너를 신설하여 독자대중의 직접적 참여를 독려하며 문학에 대한 열망에 부응한다. “내용은 서신, 상담, 문예(시, 수필)” 등 독자대중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참여가 예상되었는지 편집실에 “주간국제 독자문예계”를 따로 마련하고 있었다.³⁸⁾ 한국전쟁기 열악한 출판문화 환경에도 출판물의 중심에 문학이 있었고,³⁹⁾ 『주간국제』 ‘독자문예란’도 문예, 특히 시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독자문예란’은 『주간국제』의 문학 비중을 높이면서 독자대중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었다.

창간호부터 제15호까지 『주간국제』에 게재된 문학작품은 총 73편이

33) 『편집후기』, 『주간국제』 제8호, 1952.5.27, 32쪽.

34) 『편집후기』, 『주간국제』 제10호, 1952.7.15, 34쪽.

35) 『편집후기』, 『주간국제』 창간호, 1952.1.12, 18쪽.

36) 『편집후기』, 『주간국제』 제3호, 1952.2.15, 18쪽.

37) 『편집후기』, 『주간국제』 제8호, 1952.5.27, 32쪽.

38) 『독자문예란』, 『주간국제』 제13호, 1952.9.27, 34쪽.

39) 이봉범, 앞의 글, 2006, 242쪽.

다. 『국제신보』 광고에 기대 제18호까지 확대하면 총 78편에 달한다. 『주간국제』의 코너명에 일정 부분 기대보면, 시·동요 35편, 소설·야담 13편, 수필·수상·수기 18편, 비평·시평 12편이다. 그리고 작가별로 수록편수를 살펴보면 김광주와 박인환이 4편으로 가장 많다. 이봉래가 3편, 조영암, 한정동, 박화목, 조병화, 이주홍, 박태진, 박성환, 김운성, 김정린, 조향, 김규동, 김차영, 박기원이 각각 2편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외 그 외 작가는 1편씩이다.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간국제』 소재 문학자료 일람⁴⁰⁾

호수	장르명	작가명	작품명	비고
1	수필	윤백남	풍로한담	
	시	조영암	피의 능선	
2	시	이형기	草上靜思	
	시	김운성	젯트기	
	단편	김광주	수면제	
3	단편소설	오영수	두 피난민	
	시	박인환	검은 신이여	
	수필	조연현	천직·직업·예술-단상집 초	

40) <표1>은 『주간국제』 창간호부터 제15호까지 문학작품이 게재된 순서대로 장르명, 작가명, 작품명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장르명은 『주간국제』에 제시된 명명법을 그대로 따랐다. 이때 누락된 몇 부분은 해당 호수나 앞선 호수의 방식을 참조해 필자가 덧붙여 기록했다. 제9호에서 ‘후반기동인문예’만 장르명이 누락되어 있어 같은 호수의 특징에 명명된 방식대로 장르명을 표기했다. 제12호 이 한과 제13호 박인환의 글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비고란은 해당 문학작품이 포함된 특징이나 기획 코너명을 밝혀두었다. 이때 제16호부터 제18호는 망실된 자료로 『국제신보』 소재 ‘광고목차’에 따른 것임을 제시했다. 주요 목차를 게재한 구체적 일자는 『국제신보』 1952년 12월 27일과 28일, 1953년 1월 17일과 18일, 2월 3일이다. 마지막으로, 작품명은 『주간국제』에 실린 제목 전체를 밝혀두었다. 다만 필자가 한글로 고쳐 읽기 편하게 하였으며, 일부 제목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한자 그대로 밝혔다.

41) 제7호와 제8호의 ‘서한’은 지면 관계상 필자가 간명하게 장르명을 표기하고 비

4	수상	박성환	중군낙수	
	단편소설	강신재	봄의 노래	
	시	피창천	나는 너 때문에	
5	단편소설	이주홍	낙선미인	
	시	김경린	급행열차는 타자기와 같이	
6	공트	황순원	무서운 웃음	
	단편소설	장덕조	서리	
	시	허백년	불안-세계의 부조리에게	
7	수필	김광주	넥타이를 풀어놓고	
	시	조향	NORMANDY 항로전야	
	서한 ⁴¹⁾	조영암	김순애 선생께	조그만 봄의 서한
8	시	이은상	올림픽 선수 환송가	오륜대회참가특집
	수필	김규동	날개 없는 벽화	
	서한	조병화	경희에게	조그만 봄의 서한
	현대소설	조용만	청춘상실(1)	
	시	이봉래	花葬-序章	
9	문예평론	백철	탈피의 모랄 -자기혁신과 작가의 길	신록문예특집
	문예평론	방기환	아동문학소고	신록문예특집
	동요2편	한정동	하늘과 나/ 참새와 마차	신록문예특집
	문예평론	천상병	천사의 귀향-비극의 초극	신인문예특집
	시	최계락	낙화	신인문예특집
	시	한성기	교외에서	신인문예특집
	문예평론	김성욱	시와 인형	신인문예특집
	문예평론	이봉래	현대시의 발상의 경위	후반기동인문예
	시	김경린	化粧한 年代를 위하여	후반기동인문예
	노트		후반기동인	후반기동인문예
	시	김차영	내일의 오늘	후반기동인문예
	문예평론	박기준	『모-더니즘』의 메뉴	후반기동인문예 ⁴²⁾
	문예평론	박인환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후반기동인문예
	시	조향	투명한 오후	후반기동인문예

	시	김규동	밤의 계단에서	후반기동인문예
	현대소설	조용만	청춘상실(2)	
	시	조병화	무수한 태양	
10	6·25회상	박성환	단장이 후퇴 -벗과 신문과 영창	6·25 二題 ⁴³⁾
	6·25회상	오소백	아동과 전란과 인생	6·25 二題
	수필	박기원	슬픈 해후	
	단편	김광주	나의 가슴은 항상 푸르다	
	평론	백철	탈피의 모랄 -자기혁신과 작가의 길(하)	
	시	박태진	도시	
	시	박인환	미래의 창부-새로운 신에게	
	현대소설	조용만	청춘상실(3)	
	시	김상화	일기예보	
11	수필	박기원	구멍	
	현대소설	조용만	청춘상실(4)	
	시	박화목	탕아의 노래	
12	중군수첩	서상덕	동해단장-양도를 찾아서	
	수기	이한	『거제도포로일기』 -석방된 포로 피의 체험기	
	시	高遙	길 풍경	
	전등신화	이주홍	아름다운 목단등	
13	시평	박인환	조병화의 시	
	현대소설	조용만	청춘상실(완)	
	시	김차영	인간배신	
	시	김형수	불여귀/ 동경	독자문예란
	시	고석규	다방	독자문예란
	동요	손동인	조국	독자문예란
14	소감	금수영	인사말	
	단편소설	정진엽	우직(愚直)-임진육전여담	
	시	전봉건	그리고 옳은 쪽 눈을 감았다	
	시	최수산	절벽	독자문예란

	시	윤재원	달 -전물장병 위령제에 바치는 글	독자문예란
	시	이종출	눈먼 항구	독자문예란
15	수상	배상하	식자수난(識者受難)	단상
	시평	김송	亂調에도 묘미 -김상화시집을 읽고	
	수감	한정동	여인(麗人)과 거울	
	수필	박화목	나의 의견	
	단편소설	정한숙	광녀(狂女)	
	역사소설	박용구	진성여왕(상)	
	시	박태진	서울과 抒情	
	시	장세호	강남제비들에게	독자문예란
16	시	김운성	또 하나의 피난기	광고목차
	역사소설	박용구	진성여왕(중)	광고목차
17	단평	이봉래	문화인단평(공초편)	광고목차
	수필	조영암	춘원의 연애	광고목차
	중편소설	김광주	이혼성명서	광고목차
	역사소설	박용구	진성여왕	광고목차
18	비평	조영암	춘원연구-이광수의 저항문학	광고목차
	중편소설	김광주	이혼성명서②	광고목차
	역사소설	박용구	진성여왕④	광고목차

2) 문학배치와 참여 문인들

- 시일: 1952년 4월 바람 불고 어두운 저녁 끝에 폭우 나리는 한밤중
- 출현인물: [황천측] 이인직, 나도향, 현진건, 심훈, 백신애, 강경애,

고란에 본래 명명(命名)을 밝혀두었다.

- 42) 제9호에서 박기준의 글이 ‘후반기동인문예’ 특집에 실렸지만, 제10호 『편집후기』에서 “박기준씨를 『후반기동인』으로 취급된 듯된 것은 편집의 오차”라며 사과하였다. L生, 『편집후기』, 『주간국제』 제10호, 1952.7.15, 34쪽.
- 43) 목차와 본문의 명명방식이 다른 경우다. 본문의 “6·25 회상”을 장르명으로 올리고 목차의 “6·25 二題”를 코너명으로 간주하여 비교란에 제시하였다. 제15호 배상하의 글도 마찬가지로 방식을 따랐다.

이상, 김유정, 이상화, 이고월, 이효석, 이육사, 김소월, 한인택, 이규훈, 윤동주, 한용운, 윤근강, 안석영, 조세립, 김대봉, 정지용, 김기림, 김동환, 이석훈, 정인섭, 함세덕, 박용철, 박영희, 이광수, 김동인, 김안서, 전봉래, 함대훈.

[사파측] 변수주, 오상순, 박종화, 염상섭, 이현구, 김광섭, 주요섭, 최남선, 이은상, 최독건, 김기진, 이하운, 김말봉, 서정주, 김동명, 양주동, 김달진, 이병기, 최정희, 장덕조, 유엽, 김송, 김소운, 장만영, 박계주, 김영수, 박영준, 이무영, 임궁재, 김동리, 손소희, 조지훈, 조영암, 조향, 조연현, 모운숙, 이봉래, 노천명, 임옥인, 유치진, 유치환, 유동준, 김현승, 김종문, 이영순, 박연희, 이상(異常), 박두진, 박목월, 김경린, 곽중원, 주요섭, 김상옥, 김규동, 공중인, 김윤성, 이인석, 박인환, 김광주, 한무숙, 윤금숙, 양명문, 최재형, 박남수, 최태웅, 한후구, 이봉구, 박기준, 장혁주, 김달수, 강용홀.

[읍서버-황천측] 홍난파, 나운규, 신채호, 박은식, 나혜석, 방정환, 김복진, 윤심덕

[읍서버-사파측] 이상범, 남관, 전창근, 고춘곡, 임원식, 조동필, 최호진, 김순애

· 사회: 공초 오상순

· 司察: 황천측-전봉래, 사파측-김윤성⁴⁴⁾

“문단인 총동원 방담회”를 내건 인용문은 한국전쟁기 문단재편의 일면을 제시한다. “사과 對 황천”을 뛰어넘는 상상적 해후의 장(場)에 한국 현대문학사의 명망 있는 문인들을 호출하고 있다. “읍서버”를 포함해 호명된 문인들은 120여 명에 달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쟁으로 문인들의 달라진 현황이다. 한국전쟁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은 문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인용문에서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된 문인들, 즉 정지용, 김기림, 김동환, 김안서, 박영희, 이광수, 이석훈

44) 민마생, 『요절복통할 방담-문단인총동원방담회』, 『주간국제』 제7호, 1952.5.8, 22쪽. 여기에서 “사파측”의 ‘이상(異常)’은 글자가 많이 뭉개져 한자를 부기했으며 필자가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문인이다.

등은 이미 “황천측”으로 분류되어 있다. 1·4후퇴 이후 피난문단을 들쭉이게 했던 전봉래의 자살사건을 포함하는 다른 한편에는 런던대 교수로 재직했던 정인섭을 “황천측”에 포함시키는 실수도 눈에 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문인들의 현황은 문예지 『문예』와 『신조』에서 조사하여 게재한 바 있고,⁴⁵⁾ 1·4후퇴 당시 『국제신보』도 <문화인부락> 코너를 신설하여 다룬 바 있다.⁴⁶⁾ 그 연장선에 인용문이 놓여 있지만 허술한 부분이 적잖다. 전쟁으로 대규모의 인구이동과 구성변화 속에서 문인들의 현황 파악조차 여전히 적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단의 재편상황을 전경화한다. “황천측”과 “사과측”을 아우르는 문인들은 반공우익 중심으로 문단이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949년 중등교과서에서 삭제된 좌익과 월북 문인의 존재는 이미 찾아볼 수 없으며, 호명된 문인들의 방담은 “요절복통” 이전에 이러한 문단논리가 단호하게 작동되고 있다. 더욱이 “사과측”은 전쟁기 생존 문인들을 포괄적으로 포용하지 않는다. 교포작가 김달수와 강용홀을 포함시키면서 정작 호명될 법한 명망 문인들조차 빈자리가 유독 많으며, 지역 문인과 아동문학가 등도 여전히 문단의 타자로 배제되어 있다. 필자의 주관적 기준에 휘둘렸다고 보기에는 해방 이후 지속된 문단의 선택과

45) 『문예』 전시판은 「문단은 다시 움직인다」에서 문인들의 행방을 전하고 ‘사고(社告)’를 통해 이어갔다. 『신조』는 피난문인들의 소식을 「피난문인군상」과 「문화인의 생활」을 통해 전했으나 폐간으로 중단되었다. 이는 휴전 이후 발간된 『문화세계』 제3호의 「특별대부록 현존한국문화인총람」에서야 자세히 다루어진다. 나보령, 앞의 글, 252-253쪽; 김준현, 「한국전쟁기 잡지 『문화세계』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40권, 우리문화회, 2013, 459~450쪽.

46) 『국제신보』의 <문화인부락>은 1951년 1월 4일부터 1월 16일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인부락>은 부산으로 피난 온 문인들의 근황을 짚막하게 소개하는 코너인데, 거론된 문인은 김내성, 안수길, 손소희, 한무숙, 조규동, 박태현, 김선녀, 남관, 김연희, 송지영, 김동리, 김광주, 김양안, 김광섭, 이현구, 조영암 등이다. 특히 1월 16일에 공중인이 남북되었다가 거제도 피난민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을 시인 이정호를 통해 알려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당시 『국제신보』의 자료누수가 적잖아 확인 가능한 것들은 이 정도이다. 「문화인부락」, 『국제신보』, 1951.1.4.;1.7.;1.10.;1.16, 2면.

배제논리가 유사하게 재현되어 있다.⁴⁷⁾ “문화권력자의 배타주의”와 “야만적 투쟁”⁴⁸⁾이 횡행하던 전쟁 이전 문단의 자화상을 내장하는 가운데 현장비평과 등단제도를 앞세운 순수문학의 제도화가 피난문단에도 이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민마생(閔魔生)”이라는 필명과 달리 인용문은 한국 문단의 고질적인 배타성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하지만 『주간국제』 소재 문학배치는 한국전쟁기 피난문단의 다양성에 보다 힘을 싣고 있다. 부산 피난문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4후퇴 이후다. 부산은 최후방 피난지로 문인의 유입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문총 본부의 이전으로 서울 중앙문단의 문학자산이 가파르게 피난문단을 형성해갔다. 부산 지역문단과 그를 둘러싼 문학 환경에도 적지 않은 충격과 활력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문학 풍토를 함께 만들어갔다. 『주간국제』가 창간된 1952년은 초창기 피난문단이 당면한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문학사회의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한 피난문단의 지형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이끌어갔던 매체가 『주간국제』이다. 『주간국제』 문학란의 참여 문인들은 부산지역에 유입된 피난문인이 토박이문인보다 비중이 높다. 『주간국제』의 발표지면이 국제신보사의 인적 영입방식처럼⁴⁹⁾ 피난문인들에게 개방적이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사파측” 대부분이 부산에 거주했던 피난문단의 문인들이었고,⁵⁰⁾ 『주간국제』는 그 문인들과 문학란을 함께 했다. 달라지는 부산지역 문학사회에 개방적이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세대와 젠더, 지역과 지식, 그리고 문학노선과 창작경험 등이 서로 다른 문학주체들이 『주간국제』의 문학란에 혼용되어 있다.

첫째, 문학란의 참여 문인에 문총의 주축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청문협과 문총 산하 문협을 주도했던 조연현을 비롯하여 전쟁 발발 이후

47) 이봉범, 앞의 글, 2006, 246~247쪽.

48) 염주용, 『항도문단의 반성과 진로(상·하)』, 『산업신문』, 1950.1.3~4, 2면.

49) 최미진, 앞의 글, 2021, 220~221쪽.

50) 이순욱, 앞의 글, 2021, 123~124쪽.

문충 간부를 필두로 총후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인물들이 『주간국제』 문학란의 필진으로 나서고 있다. 1·4후퇴 이후 피난수도 부산에서 문충 주도의 총후활동을 국제신보사가 적극 후원하였고,⁵¹⁾ 그것이 문충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충비상국민선전대와 문충구국대, 그리고 종군작가단으로 이어진 총후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문인들 중에서 『주간국제』 문학란에 참여한 작가는 12명 남짓이다. 조영암, 김송, 이한직, 김윤성, 박화목, 장덕조, 박인환, 이봉래, 김규동, 박성환, 박용구, 박태진, 오영수가 바로 그들이다. 물론 이들의 총후활동이 『주간국제』 소재 작품의 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작가들이 피난수도 부산의 신생 주간매체에 참여하며 동료와 후배 문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학란에는 과거의 이력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원로 문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전향문인 윤백남과 황순원에게는 생존을 위한 사상검증이 급선무였다. 때문에 윤백남은 전쟁 발발 이후 염상섭, 이무영과 현역 해군장교로 입대하였고, 황순원은 육군 종군작가단에 추가 참가한다. 카프전향파로 중간과 문인을 자처했던 백철은 이들에 비해 거리두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소급되는 좌익 혐의에 자유롭지 못했고 피난지 부산의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은거하다시피 했다. 전향의 명예가 이들 문인을 피난문단의 주변부로 밀어냈지만, 『주간국제』의 문학란에서 그들의 문학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피난수도 부산의 신문방송매체에서 활동한 문인언론인들이 『주간국제』의 문학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경향신문』 문화부장 김광주와 문화부기자 박인환과 후임 박기원, 『동양통신』 정치부장 김차영, 『연합신문』 문화부장 김규동이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영자 정부지 『코리아

51) 1·4후퇴 이후 피난수도 부산에서 문충 주도의 총후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전시문예강좌(1951.5)’는 국제신보사가 후원하고 신청자 접수까지 도맡았다. 『문예강좌 문충서 개최』, 『국제신보』, 1951.5.24, 2면.

타임즈』 주필 조용만과 서울중앙방송국 시 담당 PD 박화목도 힘을 실었으며, 『부산일보』 초대문화부장 정진업과 대구의 『영남일보』·『대구매일신보』 문화부장 장덕조도 작품발표에 동참했다. 『주간국제』 문화부장이진섭은 이들 문인언론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난문단에서 후반기동인은 『주간국제』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었다. 후반기동인은 신시론 동인이 해체된 1949년 서울에서 김경린 주도로 박인환, 조향, 이한직, 이상로로 동인 결성을 의논하였다. 1950년 시집 『후반기』 발행이 무산되면서 본격적 활동은 피난지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1951년 이한직과 이상로가 빠지는 대신 김차영, 김규동, 이봉래가 합류했다⁵²⁾. 이들은 부산에서 발행되던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향신문』과 대구에서 발행하던 『태양신문』 등에 많은 글을 발표했다.⁵³⁾ 뿐만 아니라 작품 발표의 장으로 삼았던 순문예지 『신조』가 제3호로 종간되면서⁵⁴⁾ 『주간국제』를 주된 발표매체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부산경남지역에서 동인지활동을 해온 신인과 독자들의 참여가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제9호 ‘신인문예특집’에서 호명된 신인은 천상병, 최계락, 한성기, 김성욱 넷이지만, 여기에 갓 등단한 이형기를 더하고, ‘독자문예란’에 참여한 김형수, 고석규, 윤재원, 장세호까지 모두 동인지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들은 학생시절부터 여러 지역신문과 동인지, 어린이잡지 등에 원고를 보내 등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력이 삼삼오오 모여 새로운 문학동인지를 만들어갔다. 대구지역 동인지 『죽순』에서 추천 등단한 최계락과 천상병, 제1회 영남예술제로 만나 동인지 『二人』(1951)을 발간한 이형기와 최계락, 제2회 영남예술제를 계기로 의기투합한 천상병과 송영택이 발행한 『처녀지』

52) 엄동섭·염철, 『새로 작성한 박인환 연보』, 『근대서지』 제8호, 근대서지학회, 2013, 676~691쪽.

53) 김경린, 『현대성의 경험과 모더니즘』, 강진호·이상갑·채호석 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33~34쪽.; 이순욱, 앞의 글, 2006, 261~269쪽.

54) 나보령, 앞의 글, 2019, 251~252쪽.

(1951), 부산지역 고등학생 문학동인회 서지문학청년구락부가 내놓은 등사판 동인지 『서지』(1952)와 참여 동인 김형수, 부산사범학교 문예부 윤재원·유중윤이 내놓은 『고향』, 부산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연합 신작품동인회가 발행한 『신작품』(총7호, 1952.3~1954.12.31.)과 참여 동인 천상병, 고석규, 김성욱, 한성기, 그리고 부산대 문학단체 시조동인회가 발행한 『시조(詩潮)』(총6호, 1953.4.1~11.25)와 참여문인 고석규, 김형수, 장세호 등등⁵⁵⁾ 학생들의 문학적 열정이 지역과 학력, 문학역량을 뛰어넘어 서로 연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부산지역 문단과 피난문단 모두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한 이들의 면면들이 『주간국제』 문학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후에도 부산경남 지역문학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주간국제』 소재 문학작품들을 토대로 피난문단의 문학담론의 특징적 면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주간국제』 소재 문학작품과 문학담론

1) 반공국가주의와 전쟁문학

『주간국제』 창간호에 실린 두 작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윤백남의 수필 『풍로한담』이 한·중·일의 목욕 풍속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라면,

55) 부산경남지역 동인지활동은 지역문학 연구자와 논문들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상세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송창우, 『전쟁기 부산이 낳은 동인지 『신작품』, 『지역문학연구』 제6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0.;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시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과 동인지』, 『영주어문』 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한정호,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 『영주어문』 제18집, 영주어문학회, 2009.; 한정호, 『한국전쟁기 마산의 문학매체와 『낙타』』, 『인문논총』 제29권,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한정호, 『한국전쟁기 진주의 학생 동인지 『군상』』, 『한국지역문학연구』 제8권 2호, 한국지역문학회, 2019.; 강호정, 『해방기 동인지 『죽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9집, 한국문학회, 2015.

조영암의 『피의 능선』은 종군의 비장한 체험을 시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고령의 현역장교 윤백남이 부산에 머물며 놀랄 것 없는 목욕 이야기로 독자대중과 소통했다면, 1951년에 전쟁시집 『시산을 넘고 혈해를 건너』를 내놓았던 조영암은 후방도시의 ‘국민’을 호출하며 반공이데올로기의 선전에 힘쓰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선전전은 물리적 승리를 넘어 이념적 승리를 이끌어내는 최선의 전략이자⁵⁶⁾ 문화적 기술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의 독립된 전투수단⁵⁷⁾으로 부각되었다. 전쟁이 국민화 프로젝트를 촉진시키는 혁신이며 일종의 극한적 형태라는 점에서⁵⁸⁾ 보다 긴요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가운데 조영암을 비롯한 종군작가단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생산·유포시키면서 국민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미디어의 일환으로 기능했다.⁵⁹⁾ 자발적 동원방식의 종군활동을 통해 문화인의 책무를 강조하며 선전 임무에 앞장섰다. 조영암의 전쟁시 『피의 능선』은 포화가 멈춘 능선에서 승리를 위해 전의를 고취하고 나아가 “어쩔 수 없는 젊음과 조국 앞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후방에서 애국자 행세하는 이들은 최선전에서 싸워봐야” 한다며 “전선의 용사들”이 “진정한 애국자”⁶⁰⁾라고 호명했던 박성환의 수필 『종군낙수』는 앞선 전쟁시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주의와 애국주의,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전쟁문학의 전범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주간국제』 소재 전쟁문학은 4편에 불과하다. 조영암의 전쟁시가 『주간국제』 창간호의 상징적 사상검증으로 비춰질 정도다.

종군문학으로 대표되는 전쟁문학은 이념적 사상전의 첨병인 동시에

56) 이선근, 『이념의 승리』, 『문예』(전시판), 1950.12, 12쪽.

57) 김종문, 『전쟁과 선전』,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30쪽.

58)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20~21쪽.

59)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48쪽.

60) 박성환, 『종군낙수(從軍落穗)』, 『주간국제』 제4호, 1952.3.31., 11쪽.

도구이다. 문인들은 사상검증과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 동원에 나섰지만, 다른 한 편에는 “르포르타주 문학”로 간주된 전쟁문학에 대한 작가적 회의⁶¹⁾와 어용작가로 비취질 불안⁶²⁾이 상존하고 있었다. 『국제신보』를 통한 김동리와 이봉래의 전쟁문학논쟁도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었다. 김동리가 중군작가의 근심과 곁을 같이 하며 전쟁문학의 순수문학화를 억지스레 주장하고 있다면,⁶³⁾ 이봉래는 이를 반박하며 전쟁문학의 위상과 방향을 새롭게 곧추세우고 있다.⁶⁴⁾ 그럼에도 전쟁문학이 내장한 의무적인 형식이 독자대중에게 감명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간국제』는 석방포로의 수기를 기획·발간하는 데 주력한다. 『주간국제』의 광고에 따르면, “석방된 포로들의 적나라한 기록”인 『거제도일기』는 주간국제가 편집하고 국제신보사가 발행을 도맡아 1952년 8월 15일에 발매되었다.⁶⁵⁾ 그러나 실질적 편자는 이한(李漢)이다.⁶⁶⁾ 국제신보사는 1·4후퇴 이후 피난수도 부산에서 이루어진 문충주도의 총후활동을 적극 후원한 바 있지만, 1952년에는 『거제도일기』를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반공국가주의를 선전하고 있다.

(1)

이 글은 본사 발행 단행본 『거제도일기』 중의 一文이다. 6·25동란의 사생아로서 OO아닌 OO의 생활을 지내온 포로들의 생생한 체험수기

-
- 61) 이하운, 『계축년의 과제-민족문학의 진로』, 『국제신보』, 1953.1.1, 4면.
 62) 구상, 『중군작가단2년』, 『전선문학』제5호, 육군중군작가단, 1953, 57~59쪽.
 63) 김동리, 『전쟁적 사실의 문학적 비판』, 『국제신보』, 1952.6.15~21, 2면.
 64) 이봉래, 『전쟁문학론-김동리씨의 『전쟁적 사실의 문학적 비판』에 대한』, 『국제신보』, 1952.5.26.~7.1, 2면. 그럼에도 한국전쟁기 전쟁문학이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의 동원문학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은 전쟁문학이 안고 있는 숙제다. 김준현(2013), 앞의 글, 388~390쪽; 장은영, 『전쟁문학론의 전개와 폭력의 내면화』, 『우리문학연구』 제66권, 우리문학회, 2020, 367~406쪽.
 65) 『광고』, 『주간국제』 제11호, 1952.8.18, 2쪽.
 66) 이한(李漢)은 『주간국제』에 휴전회담 관련 외신뉴스를 여러 차례 번역·해설한 기자로, 『국제신보』에서 “본사특파원 이한명(李漢名)”으로 거제도수용소 소요사건을 다루기도 했다. 이한명, 『그 후의 거제도』, 『국제신보』, 1951.5.24, 2면.

다.// 포로들의 적나라한 생활과 고민하는 인간에... 무자비한 사상과 이념의 노예로서 끝끝내 저항하는 붉은 군상! 생지옥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비극이란 명사를 초월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삶의 주문 증오 애정 죄악상이 운무하는 참혹한 광경은 이십세기 후반기가 빚어내고 있는 두 개의 세계의 단축도인 것이다.(李漢)⁶⁷⁾

(2)

소위 인민재판이니 비판대회니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살의에 등등한 싸늘한 분위기였다.

H군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몸을 맡기었다.

큰 대자로 사지를 꼭 붙들어 맨 다음 곤봉이며 장작개비로 두드려 패기 시작했다. <중략>

『나는 나의 갈길을 결정하였다.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상도 주의도 모른다. 다만 같은 동포로서 동족으로서 이처럼 무자비한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비애와 인간적인 고민에 울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청산되었다. 수용소 내의 모든 동포들이여 잘 있거라…… 다시는 또 이 땅에 동족의 비극이 없기를……1951년 9월 27일 韓仁善』⁶⁸⁾

그렇다면 『주간국제』의 첫 기획저서에서 석방포로의 수기를 내세웠을까? 무엇보다 1952년 당시 포로송환 문제는 휴전회담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독자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최되었지만 포로송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휴전회담이 개최될 당시만 해도 피난수도 부산은 한국전쟁의 조기 종식과 환도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이었고, 1952년 벽두에 이승만 대통령 또한 3월 환도가능성을 내비칠 정도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오랜 기간 담보상태였고, 때문에 전장의 막대한 피해만큼 후방

67) 이한, 『거제도포로일기-석방된 포로 피의 체험기』, 『주간국제』 제12호, 1952.9.5, 26쪽.

68) 이한, 『거제도포로일기』, 석방된 포로 피의 체험기, 『주간국제』 제12호, 1952.9.5, 27~28쪽.

피난지의 생활고도 극심했다. 게다가 거제도포로수용소의 설치 이후 포로들의 “피나는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1952년 5월 발발한 거제도포로 소요사건이 대표적인데, 이념과 국적을 넘어 포로들의 생존과 인권이 위협받았으며 유엔군의 자리도 위태로울 정도였다.⁶⁹⁾ 6월 10일 무력 진압된 후 6월 29일 미 국방부는 민간인억류자에 대한 석방을 명령하고 7월부터 제1차 석방이 실시되었다.⁷⁰⁾ 『주간국제』가 이러한 포로송환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기획주제로 삼은 것이다.

더욱이 『주간국제』는 ‘수기’의 수사학을 동원하여 포로석방에 대한 공론장을 국가주의의 기획에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체험수기가 내장한 증언은 “전쟁이나 탄압 혹은 혁명처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런 사건을 서술하고자 결심한 증인에 의해 서술된 진정한 서사물”로, “대중적이며 구어적 담론을 강조하면서 증인은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의 대리인으로서 자기의 경험을 묘사한다.”⁷¹⁾ 증언은 사실 규명이라는 역사적 수행이 아니라 특수하고 비실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이해하게 될 때 나타나는 서사적 상상력은 행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행위 주체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하며 선악을 판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윤리성을 함의한다.⁷²⁾ 인용문 (1)에서 보듯 “포로들의 생생한 체험수기”는 “생지옥”에 다름없는 반공 “포로들의 적나라한 생활과 고민하는 인간애”와 “무자비한 사상과 이념의 노예로서 끝끝내 저항하는 붉은 군상”의 극명한 대조를 구조화한다. 인용문 (2)에서 보듯 공산포로의 무자비한 학살과 대조되는 반공포로의 체념과 죽음과 용서는 독자대중에게 분노와 비애, 그리고 동정을 동시에 불러일으

69)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248~269쪽.

70) 조성훈, 『한국전쟁중 민간인억류자의 처리에 관한 연구』, 『군사』 제3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6.

71) 송병선, 『라틴아메리카 증언문학의 시학과 하위 주체의 문제』,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7집,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4, 380쪽 재인용.

72) 장은영, 『증언의 시학: 역사에서 윤리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전남대 5·18연구소, 2011, 45~46쪽.

킨다. 이러한 감성들은 정향적인 윤리적 판단을 이끌어낸다.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포로석방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동시에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에도 조력한다. 종군작가단의 일련의 총후활동과 작품들이 과도한 목적성에 휘둘러 식상해져가고 있었다면, 『주간국제』가 기획한 포로체험 수기들은 체험의 진정성과 이야기의 다양성을 갖춘 증언들이 독자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반공국가주의의 공고한 구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2) 단편소설과 창작태도의 답습

『주간국제』는 창간호와 제7호를 제외하고 소설을 비롯한 서사물이 꾸준히 게재되었다. 수상이나 콩트조차 찾기 힘들었던 1951년 전반기 ‘신춘문에 릴레이’⁷³⁾를 게재했던 『국제신보』는 발 빠르게 동년 10월 1일부터 정비석의 『인생화첩』⁷⁴⁾을 연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간국제』에도 이어져 단편 7편, 신화와 콩트 각1편, 연재소설 3편이 게재되었다.⁷⁵⁾ 김광주의 독주가 두드러지지만 신진과 중견, 지역과 중앙의 작가들을 골고루 배분하려 했던 노력도 엿보인다.

『주간국제』 소재 소설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피난지의 생활이다. 피난수도 부산에 유입된 한도 초과의 피난민들뿐 아니라 토박이 지역

73) 『국제신보』는 1951년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춘문에 릴레이(掌篇小說)’를 연재하였다. 소설에는 김말봉, 김송, 최태웅, 한무숙, 이무영, 김광주가, 시는 서정태, 이한직, 이정호, 유치환, 모운숙, 설창수가 함께 혹은 따로 게재되었다. 『신춘문에 릴레이(掌篇小說)』, 『국제신보』, 1951.4.1~29, 2면.

74) 정비석의 『인생화첩』은 『국제신보』의 첫 신문연재소설로 1951년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42회 연재되다 중단되었다. 성낙훈의 『통속임란사』가 이듬해 1월 1일부터 연재되었는데, 그 사이 염상섭의 단편소설 『쩍 나이프』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7회 발표되었다.

75) 『주간국제』 소재 소설은 창간호부터 제18호의 ‘광고목차’까지 아우른 것이다. 이때 ‘연재소설’은 신문매체의 장편소설을 가리키지 않는다. 장만영의 ‘현대소설’ 『청춘상실』, 박용구의 ‘역사소설’ 『진성여왕』, 김광주의 ‘중편소설’ 『이혼성명서』가 주간매체에 걸맞게 길지 않은 호흡으로 연재된 소설을 말한다.

민들의 삶도 피난지의 일상사를 공유한다. 급변하는 전황만큼이나 후방 도시의 가파른 삶의 질곡과 애환을 서사화하면서 혐오와 질시, 고통과 절망, 허무와 무기력, 사랑과 연민 등의 다양한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다.

(1)

「하하하... 술이 확실히 나쁜 줄 알면서도 아니마시고는 못 배기는 것은 우리들의 시대적인 통병(通病)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피차에 자중하지... 우리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나? 집이 있나? 돈이 있나? 몸...몸 하나 뿐이지...알몸등이 하나뿐인데...그걸 스스로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아...」 <중략>

「나하구 똑같은 병? 그 여자두 수면제를 가질러 온단 말이지?」

「그럼.....벌써 일주일째야...」

「일주일? 나보다는 상당히 중증인 모양이군! 그래 그 여자도 술 때문에?」⁷⁶⁾

(2)

광녀와 지계꾼과 깡통을 뒤흔들고 서 있는 빨가숭이와 그리고 다리가 피곤스러워 찢리운 다리가 그리워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이군인 한 사람이 앉아 있다.

목썩 스피커가 자기 자랑에 더욱 목매어 음성이 갈라진 것 같다.

초라한 시민들에 비하여 그들만이 유달리 흥분하는 것 같다.

대통령!

부통령!

눈앞에 박두한 선거전은 북위 三十九도 동부전선에서 벌어져 있는 전투보다도 치열한 것 같다.

사치한 뼈라가 쏟아져 불꽃같이 휘날린다.

진중일 조무래기들은 이것을 주서 모두기에 신들이 났다.

열장 수무장!.....⁷⁷⁾

76) 김광주, 「수면제」, 『주간국제』 제2호, 1952.1.24., 14쪽.

77) 정한숙, 「광녀(狂女)」, 『주간국제』 제15호, 1952.11.20, 26쪽.

인용문 (1)은 김광주의 『수면제』로 전쟁기 피난민의 삶을 의학적 진단과 처방방식을 통해 전경화하고 있다. 금단현상으로 수면제를 요구하는 주인공 ‘나’와 중학교 동창인 의사의 대화 장면이다. 열패감과 불안으로 뒤엉킨 ‘나’에게 의사는 “술”이 “피난지 공통(병)”이라는 병리학적 시대 진단을 내린다. 전쟁이 초래한 ‘나’의 피난생활은 소설가에 대한 꿈은 물론이고 “집”도 “돈”도 없이 오로지 “몸”으로 버텨야 하는 궁핍함 자체다. 이때 “중증”을 의심했던 여자환자의 삶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다. 양갈보에게 연인을 빼앗긴 실업가의 첩으로 “몸”으로 버티는 것조차 불가능해 질까봐 극도의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 피난민의 삶이 열악함을 넘어 불모성의 단면을 극화한 것이다. 피난민들에게 더 이상 상대방의 불의에 맞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비관하며, 이제 일시적 자살에 가까운 수면제 처방이 고작이라는 허무주의적 색채를 짙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인용문 (2)는 정한숙의 『광녀』로, 주인공 광녀가 멈춰선 광장에서 벌어진 정부통령 선거전의 단면을 재현하고 있다. 선거전은 “전투보다 치열”하고 흥분되어 “불꽃같이” “사치한 뼈라”를 휘날리지만, 정작 관심을 두는 이는 조무래기들이다. 유권자 시민들은 땡땡 광장에 무심하게 흠어 앉아 있을 뿐이다. 전쟁으로 남편과 아이를 잃은 광녀, 날뽀 팔이 지게꾼, “빨가숭이” 고아, 다리가 잘린 상이군인은 행색이 초라하다 못해 참혹하다. 특히 선거전의 과열 국면은 주인공 여성의 광기와 겹쳐지면서 전쟁의 비극성을 극대화시킨다.⁷⁸⁾ 여성의 광기가 이유 없는 결단성과 행동성으로 폭주하거나 춤추는 것이라면, 선거전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그들만이” 과열되는 광기에 휩싸여 전쟁도 시민들도 안중에 없다. 광녀를 비롯한 피난민의 피해함이 전쟁으로 인한 비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지만,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정치권력의 무심한 잔혹성이다. 당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전쟁미망인, 전쟁고아, 상이군인에 대한 갈 길 잃은 정부대책과 만연한 실업문제를 전경화하면서 1952년 부산

78) 김재두, 『정한숙 소설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2, 69~71쪽.

정치파동에 이은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다. 관찰자와 분석가를 오가는 시점의 분산·배치는 작품의 난해성을 유발하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작가는 피난지 부산과 서울에서 만난 광녀의 춤사위를 통해 전쟁의 참담한 실상을 넘어 정치권력의 잔혹성을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3)

광복동이란 거리는 부산에서 제일 변화 거리인 것 같다. 부민관에서 시작되어 「피·스」를 거쳐 「로오타리」를 지나 극장거리를 빠져서 소방서 있는 네거리에 이르는 칠팔 「미터」내지 일천 「미터」밖에 안 되는 이리의 좌우에는 가게마다 진열장에 범람하는 사치품이라든지 또 그 앞을 활개치고 지나는 청춘남녀들의 복장이라든지가 구라와 미국의 어느 변화한 거리에도 지지 않는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철수는 이 광복동거리에 들어서기를 싫었다. 평생 기름을 바른 일이 없는 거칠은 머리와 돌돌 말린 색바랜 「넥타이」와 목에 때 찌져져 흐르는 「와이샤츠」와 닮아서 반들반들해진 검은 「사아지」, 웃저고리와 염색이 얼룩얼룩 나온 고동색으로 물들인 미군 바지와 그리고 뒤축이 찌뿔어진 병정구두—이런 복장은 이 화려한 거리와는 무뚝 어우릴 까닭이 없는 존재인 것 같았다. <후략>⁷⁹⁾

조용만의 「청춘상실」은 『주간국제』에서 처음으로 연재된 ‘현대소설’이다.⁸⁰⁾ 인용문 (3)은 「청춘상실」의 도입 부분으로 피난수도 부산의 광복동 변화가의 풍경에 걸맞지 않은 주인공 철수의 초라한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짝막한 묘사에도 소설은 당시 부산 변화가가 위치했던 장소와 풍경이 드물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광복동 변화가는 현재 남아있

79) 조용만, 「청춘상실(1)」, 『주간국제』 제8호, 1952.5.27., 26쪽.

80) 조용만의 「청춘상실」은 5회 연재된 중편소설로, 이후 「서정가(抒情歌)」로 개작되어 『사상계』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1958.1~3) 3회 분재되었다. 서사적 인물과 배경 설정은 유사하지만 내용과 진행방식에서 적잖은 차이점을 지닌다. 상세한 논의는 후일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는 부민관 건물을 출발점으로 해관로를 따라 로터리를 건너 지금의 광복동 패션거리에 훨씬 못 미치는 사거리에서 멈춘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이 길은 일제강점 이래 인구 이동과 물품 교역이 많았던 장소이며, 전쟁기에 미국식 변화가로 탈바꿈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가의 피난 체험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인데, 그것은 주인공 철수를 신문사 번역기자로 설정해⁸¹⁾ 자신의 기자체험⁸²⁾과 함께 재현되고 있다. 그런 철수의 시선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후방도시 변화가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거기에는 철수 자신의 열패감과 위압감이 겹쳐 드러나 있다. 이러한 현실비판의 이중성은 전쟁기 지식인의 자의식을 묘파하는 동시에 서사의 새 국면마다 난항을 예고한다. 작가의 1930년대 소설이 경성의 산보객을 통해 시대적 분위기를 담보해냈다면,⁸³⁾ 이 소설은 신문기자 철수를 통해 피난지 부산의 상황과 분위기를 유의미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주간국제』에서 피난생활을 다룬 소설들은 작가적 체험과 결합하여 당대 사회적 현실과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다. 서로 다른 소설적 현실을 담아내고 있지만, 이들 소설에 대한 관심이나 평가는 미미하다. 그것은 『주간국제』에 실린 백철의 글에서 이미 예견된다. 백철이 요구한 피난문단 작가들의 자기혁신은 당면한 창작현실과 창작과정의 문제를 노출한 결과다. 『주간국제』 소재 소설들에 적용시켜 보면, 가깝고 먼 역사적 과거에서 소재를 찾아서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소설들(장덕조의 「서리」, 이주홍의 「아름다운 목단등」, 정진업의 「우직」, 박용구의 「진성여왕」), 현재를 배경으로 낭만적인 서정성을 추구하는 소설(강신재의 「봄의 노래」), 현대 풍속의 한 장면을 스케치해 인생의 단면을 재현한

81) 백지혜, 「체험과 기억 사이의 조용만 소설」, 『한성어문학』 제35집,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2016, 125쪽.

82) 소설 연재 당시 조용만은 부산 정치파동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정부보조금이 중단된 「코리아 타임즈」의 주필로 피난생활이 힘들어진 시기로 보인다.

83) 오태호, 「조용만 소설에 나타난 1930년대 지식인의 자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제155호, 국어국문학회, 2010, 303~326쪽.

소설(김광주의 『수면제』와 『나의 가슴은 항상 푸르다』, 오영수의 『두 피난민』, 황순원의 『무서운 웃음』, 이주홍의 『낙선미인』) 등 타성에 젖은 창작태도의 소산에 거의 포함되어 있다. 문학적 자기혁신이 “시대현실에 대한 비판정신과 상응된 자기혁신의 표현”으로 향하기를 기대했지만 『주간국제』에 게재된 소설들도 여느 신문잡지의 소설상황과 거의 유사했던 셈이다. 물론 백철이 소설적 모범을 장편 리얼리즘소설에 두었고, 불가피하다면 신문매체에 기반을 둔 일본식 중간소설을 대안으로 삼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⁸⁴⁾ 그렇더라도 기성 작가들에 도전하는 신인들, 특히 피난문단의 활성화된 동인지활동에 비해 소설가 지망생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정한숙의 『광녀』와 조용만의 『청춘상실』이 소설의 이채를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전쟁기 소설계는 악전고투의 장이었다. 시에 비해 저조한 창작활동과 수준미달의 작품들이 거듭되었지만 마땅한 활로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다. 반공국가주의를 거스르기 힘든 전쟁기 상황에서 엄격한 검열정책과 냉전금제를 통한 억압⁸⁵⁾으로 작가의 자기검열이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피난문단은 고질적 반목과 배타주의를 껴안은 채 반공국가주의에 기대 정치적 문단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문예』로 대표되는 순수문학의 제도화 과정에서 비순수문학의 배제과정은⁸⁶⁾ 소설의 창작방법과 방향을 선회하거나 조정하게 했다. 결국 전쟁기 현실에서 백철이 말한 장편 리얼리즘소설의 주류화는 요원한 일이 되었고, 순수문학을 내건 단편소설만이 문단에서 좁디좁은 활로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1950년대 소설계가 독자대중과 괴리되는 이유를 제공하며 문학의 장(場)을

84) 백철, 『탈피의 모랄-자기혁신과 작가의 길(하)』, 『주간국제』 제10호, 1952.7.15, 26~29쪽.

85) 이봉범, 『냉전 금제와 프로파간다』, 『대동문화연구』 제107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123~131쪽.

86) 이봉범(2006), 앞의 글, 261쪽.; 이미정, 『1950년대 ‘순수문학’의 제도화 과정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10, 130~149쪽.

경직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3) 후반기동인과 모더니즘 시운동

피난문단에서 후반기동인의 문학 활동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후반기동인은 문단이 문학인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닌 일부 문학권력의 정치화로 파행에 치닫고 있으며, 나아가 순수문학을 앞세워 문학 본연의 사회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재단함으로써 문학의 빈곤과 고립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해왔다.⁸⁷⁾ 『주간국제』 제9호의 ‘후반기동인문예’ 특집을 “대범한 기획”⁸⁸⁾이라 자평할 만큼 활발한 문학 활동에도 지지 기반이 두텁지 않았던 것이다. 특집 ‘후반기동인문예’는 동인지가 없던 후반기동인의 작품들을 처음으로 묶어 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특집은 주간부장 이진섭이 주도하고 『노트』를 통해 후반기동인의 시정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참여 동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박기준은 그들의 활동이 새로운 시단 창조에 도움이 된다고 힘을 신는다.⁸⁹⁾

(1)

새로운 전통의 확립은 항상 낡은 전통에 대한 반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절의 관습과 기성관념에서의 탈출만이 문학에 새로운 차원을 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발견』이라던 『향토적 심미』 따위의 소극적인 관념은 이미 청산되어야 할 유산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저항정신을 상실한 시 정신—이것이야말로 고갈된 샘(泉)과 같다. 『비애』를 자기의 미적 세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근대적인 초속의 경지에 전락한 시인들이 얻은 미적인 대상은 애감에 찬 현세방락의 자기위안의 노래가 아니었던가…….

지금 우리에게 부가된 이중의 과제는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화

87) 이봉래, 『문학과 역사성』, 『신조』 제3호, 1952.1, 101~110쪽.

88) 박인환,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주간국제』 제9호, 1952.6.16, 24쪽.

89) 박기준, 『「모-더니즘」의 메뉴』, 『주간국제』 제9호, 1952.6.16, 23쪽.

함으로써 현대시의 혼란된 역사를 정리하는 노력과 동시에 「초속」 「유심」의 세계에서 「선각」이니 동양적 제관이니 하는 저속한 감상시에 대한 철저한 비평적 행위일 것이다.⁹⁰⁾

(2)

凸「렌즈」를
쓰고
내가 거리를 간다.

活字처럼 닳아와
나의 이마에
나의 가슴에
나의 關節에
나의 瞳子안에
正面衝突하는
重量. 重量. 重量.

△絶望과 공포 아 끝없는
객血이라고△

만나면 모두
細菌學者처럼
싸늘한 體溫을
내 손의 表皮위에 남겨놓던
選手들을 차라리 피하면서
피하면서 가야하는
凸「렌즈」의 運命 속에
오늘도
太陽과 하늘만이
骸骨처럼
骸骨처럼

90) 이봉래, 「현대시의 발상과 경위」, 『주간국제』 제9호, 1952.6.16, 23쪽.

그렇게
남아 갔다.⁹¹⁾

(3)

⑤ 한국의 소설가 제씨여! 샤르트르가 무엇을 갖다 주었습니까. 천하의 시인(운문가) 제씨여! 까뮈의 소설이 무엇을 갖다주셨나이까? 「리얼리즘부터 다시 공부해야할 사람들에게 까뮈와 샤르트르를 논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포스트엡스키-를 정독하십시오.」

⑥ 지-드를 읽어야 하겠다. 지-드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⁹²⁾

인용문 (1)의 이봉래 글은 후반기동인의 비판적 거점과 현대시의 과제를 지적한 대목이다. 현대시는 기존의 서정성과 음악성, 그리고 전통시를 혁파할 문제로 간주하고, “새로운 전통의 확립”에 앞장선다. 그것은 “낡은 전통에 대한 반항”으로 “저항정신을 상실한 시 정신”과 “저속한 감상시”에 대한 철저한 비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청산해야 할 “낡은 전통”은 청록파를 비롯한 향토적 서정시이다. 이때 모더니즘의 주요 특성으로 지적하는 현대시의 과제는 과학적 진보에 따른 현대문명의 비극에 대한 인식과 예술적 형상화, 분열된 지성과 감성의 통합, 미지세계에 대한 상상 등이다. 그 방법론으로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비판적 입장에서 현대시의 기법으로 수용한다. 박인환의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또한 같은 맥락에서 모더니즘 시운동이 사회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다는 시적 인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후반기동인에 대한 비판의 못매는 특집 이후에도 여전했는데, 『국제신보』에 국한해도 상당한 논전이 계속되고 있다. 조연현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에서 외국문학의 수용태도를 문제 삼으며 후반기동인을 “서투른 외국문학주의자”로 몰아세운다.⁹³⁾ 이에 김규동은 「전쟁과

91) 김규동, 「날개 있는 벽화(壁畵)」, 『국제신보』, 1952.2.24, 2면.

92) 김규동, 「날개 없는 벽화」, 『주간국제』 제8호, 1952.5.27, 15쪽.

93) 조연현,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외국문학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국제

시인』를 통해 전쟁기 시단을 회고하면서 후반기동인의 성과를 곧추세우고 청록파류의 서정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다.⁹⁴⁾ 여기에 백철이 가세하는데, 후반기동인 특집과 그간의 활동을 “확실히 새것을 시도했으나 진실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⁹⁵⁾고 평가한다. 서구 문학을 통한 극복방식이 무의식적 모방에 오는 기계성을 띠면서 문학의 진진과 관계없는 유희나 도피가 될 위험이 높다며 우리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담한 비판과 선택, 비약을 요구한다.⁹⁶⁾ 김규동의 두 편의 글은 이러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후반기동인문예’ 특집 이전에 발표된 글들로 인용문 (2)는 『국제신보』에 발표된 시 『날개가 있는 壁畫』이다. 작가의 첫 시집 『나비의 광장』에 『불안의 속도』로 개명해 실려 있으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전쟁으로 인한 절망과 공포 분위기가 압도하는 이 시는 논자들 사이에 김동규 초기 시의 실험들을 난해성, 모호성, 관념성, 피상성 등 모더니즘 시의 일반적 특성과 연계시켜 문제 삼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근대 문명에 대한 미적 자의식이 돋보이는 시로 평가되기도 한다.⁹⁷⁾ 당대 문단권력의 비판적 관점이 대동소이하게 이어져왔던 셈인데, 그런 가운데도 새로운 해석의 지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인용문 (3)은 움니버스 구성방식을 차용한 이색적 수필 일부다. 이 수필은 가정에서 사회, 그리고 문단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문제 환기와 자기다짐을 거듭하다 작가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하는 데서 끝맺는다. 여기에서 인용문 (2)은 당시 문단의 단면, 즉 한국전쟁기 도입된 실존주

신보』, 1952.12.5~10, 2면.

94) 김규동, 『전쟁과 시인-동란시단의 회고와 전망』, 『국제신보』, 1952.12.12~18, 2면.

95) 백철의 이 발언은 조향의 소설 『구관조』를 평가한 대목인데, 이는 뒤이은 후반기동인의 작품평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간주하였다.

96) 백철, 『계축년의 과제-현대의 불안과 문학』, 『국제신보』, 1953.1.20~25, 2면.

97) 박몽구, 『모더니티와 비판정신의 지평』, 『한중인문학연구』 제19권, 한중인문학회, 2006, 399~411쪽.

의문학을 실체도 모른 채 유행처럼 운운하는 문인들의 행태를 문제 삼는다. 이는 서구 모더니즘문학을 전범으로 삼은 후반기동인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지-드를 읽어야 하겠다.”는 작가의 다짐은 지드처럼 자신의 문학 실험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런데도 왜 작가는 ‘날개를 잃은’ 것일까? 『날개가 있는 벽화』 발표 후 3개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작가가 토로한 외로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수필의 전개 수순을 거슬러서 시와 겹쳐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인용문 (2)에서 볼록 렌즈를 쓴 시적 자아는 선수들의 싸늘한 체온에도 객혈을 해가며 해골처럼 거리를 나아가고 있다. 월남민 작가의 개인적 상황이 남한사회에서 볼록 렌즈를 쓴 시적 자아처럼 이방인으로 걸돌며 고독을 견뎌야 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그것을 피난문단으로 옮겨보면, 볼록 렌즈를 쓴 후반기동인 시인이 문학 권력 선수(選手)들의 “싸늘한 체온”만 감도는 문단이라는 벽화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운명처럼 이겨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개월 후 작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날개는 힘을 잃고 사라져갔다. 조향의 증언에 따르면 후반기동인은 부산 정치파동 후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면서 해체 수순을 밟았다 한다.⁹⁸⁾ 이 작품을 발표할 즈음 작가는 그러한 갈등의 이면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전망 부재의 “싸늘한” 문단”에서, 더욱이 후반기동인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진 작가는 자신의 외로움을 ‘날개를 잃은 벽화’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피난문단에서 후반기동인은 전통적 서정시로 고착되어가는 시단에 파란을 일으키며 모더니즘 시운동을 주도했다. 그것은 전쟁기 사회에 대한 시대인식과 저항정신에 바탕을 두며, 다르게는 새로움으로 무장한 외국 문학(이론)의 유행에 손쉽게 휘둘리는 현대문학의 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한다. 후반기동인은 해체되었지만 전후 한국모더니즘 시운동

98) 임동섭·염철, 앞의 글, 2013, 689쪽.

과 창작적 실천에 원동력이 되었다.

4) 부상하는 신인·독자와 순수문학

『주간국제』는 피난문단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신인과 독자대중에 주목하고 있다. 제9호 ‘신인문예특집’은 조연현이 엄선한 문단의 “새로운 세대” 신인들의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면, 제13호부터는 『주간국제』가 신설한 ‘독자문예란’을 통해 문학지망생 독자들을 주간매체의 새로운 주체로 호명하며 지평을 넓히고 있다.

(1)

한 사람의 인간이 예술정신의 최후의 순간에 의하여 죽는다는 것은 비극적 인간으로 돌아간다는—즉 그의 제2의 비극이 제1의 비극과 타협하고 비극 이전이 비극과 융해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그 예술가의 죽음은 비극의 승화였다. 처참한 길 위에서 그의 영혼의 전부가 탕진한 한 사람의 예술가는 이제 일반적인 인간의 한계로서는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이다. 그리고 이 불가능을 고집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인류의 적이다. 탄생과 죽음 속에서 비극에 거역하여 그가 죽었다는 것은 그대로의 죽음은 아니다. 물론 비극도 아니다. 함랭의 죽음이 SHAKESPEAR의 예술의 죽음이 되지 않듯이, 죽어가는 한 사람의 예술가는 눈을 감는다. 그는 그의 평생 동안 한 번도 그의 가족을 만족하게 먹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생활의 한 걸음 앞에서 그가 거지가 될 뻔도 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의 가족을—처를 아들을 딸을 또 딴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일 것이다. 그는 이번 것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다. 그리하여 그 가족에 대한—인간에 대한 애정을 생각했을 때 그의 눈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천사들은 한결같이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쪽에 천사들의 고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천사들 속에 끼어 천사와 더불어 날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도 봤을 것이다.⁹⁹⁾

99) 천상병, 「천사의 귀향—비극의 초극」, 『주간국제』 제9호, 1952.6.16, 11쪽.

(2)

마지막 못다필
사연이 었던들

진작 말없이
돌아 섰을게다

기인 이야기사
없었느니

꿈같은 이야기도
없었느니

아무렇게나 새겨진
한가닥 웃음이

진정 이다지도
아, 사모치거늘

끝끝내 못다필
사연이 었던들

말없이 진작
돌아 섰을게다.¹⁰⁰⁾

인용문들은 ‘신인문예특집’에 실린 천상병과 최계락의 글이다. 인용문 (1)은 천상병의 『천사의 귀향』 일부로 실존주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비유적이고 상징적 방식으로 전개되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최근 발굴·소개한 강경화에 따르면, 이 글은 비극을 초월하려는 예술가의 존재론적 운명에 대한 통찰과 각오로 보여준다. 인간이 탄생과 성장과 죽음은 피할

100) 최계락, 「낙화」, 『주간국제』 제9호, 1952.6.16, 10쪽.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이며, 극소수의 예술가만이 그것을 알고 이 비극과 정면 대결하며 비극의 어둠 속을 걸어간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이 예술정신의 최후의 순간에 죽는다는 것은 비극과의 타협이나 융화가 아니다. 예술가의 죽음 직전에 들리는 천사들의 음성이 상징하듯 삶과 죽음의 결정체인 비극의 승화이다. 이때 ‘천사’는 궁극적 본질을 찾기 위해 분투했던 예술가들을 암시하며, 작가 또한 삶과 죽음을 초극하는 문학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겠다.¹⁰¹⁾

천상병의 글에 비해 인용문 (2)는 청록파류의 서정시처럼 친숙하고 편하게 읽힌다. 최계락의 시 「낙화」는 낙화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전통적 서정시다. 간결하고 쉬운 시어의 효과적 배열과 변화를 통해 음악성과 서정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수미상관법을 활용해 시적 자아의 아쉬운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다.

천상병과 최계락은 김성욱, 한성기와 함께 조연현이 지목했던 “유력한 신인”이다. 『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 천상병이 비평가적 자질을 선보이고 있다면 아동문학가 최계락은 시로 등단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조연현이 소개하듯 “『문예』 『부산일보』 『서울신문』 『민주신보』 기타에서 이미 구면인”¹⁰²⁾ 신인이다. 이들이 부산경남과 대구 지역에서 해왔던 문학 활동, 특히 동인지 활동을 피난문단을 이어갔기 때문이다.¹⁰³⁾ 앞서 언급했듯이 피란수도 부산은 문학 지망생 학생들을 중심

101) 강경화, 「천상병 비평에 대한 고찰-1950년대 비평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62집, 우리문학회, 2019, 257~258쪽.

102) 조연현, 「신인문예특집」, 『주간국제』 제9호, 1952.6.16, 9쪽.

103) 천상병은 1949년 대구지역 시전문 동인지 『죽순』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최계락은 1947년 『소학생』에 동시 「수양버들」 등 아동문학 활동을 해가며 진주지역 학생들의 동인지 『문학청년』의 중심인물로 『죽순』에도 작품을 내놓은 바 있다. 1951년 제2회 영남예술제를 계기로 송영택과 교분을 쌓은 이들은 부산에서 동인지 『처녀지』를 내놓고 이듬해 『제2처녀지』 발간에도 함께 하였다. 천상병은 1952년 『문예』로 등단한 당시에 동인지 『신작품』에 참가하여 다수의 시를 발표하였다. 당시 최계락은 『문예』에 시 「애가」가 추천되어 등단 중에 있었다. 한정호, 앞의 글, 2009, 175~187쪽.; 이순욱, 앞의 글, 2010, 123~146쪽.

으로 동인지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문학적 역량은 신문잡지 매체를 통해 곧잘 인정받고 있었다. 천상병과 최계락의 출발점도 다르지 않았던 만큼 새로운 동인지 발간을 주도하거나 조력하는 데 힘썼다.

부산지역의 활성화된 동인지 활동에는 학생들의 문학적 열정을 북돋았던 교사들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였다. 마산 출신 천상병이 김춘수의 제자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외에도 부산중학교 김정한, 경남중학교 오영수, 동래중학교 이주홍 등 부산지역 문인들도 신세대를 형성할 문학 지망생들을 키워내고 있었다. 여기에 피난문단에 유입된 적잖은 문인들이 생활방편으로 임시교사로 재직하면서 힘을 보탤다.

『주간국제』는 입학 시즌에 맞춰 학생 모집광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온전한 학사를 갖추지 못한 피란학교에 부산지역 학교까지 가세하여 학생모집에 힘쓰는 모양새다.¹⁰⁴⁾ 그것은 피란수도 부산에 대거 유입된 피난민의 규모만큼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음을 방증한다. 그렇게 유입된 학생들의 다양성만큼 문학적 열정을 학교 문예동아리나 연합동아리로, 나아가 동인지 활동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간국제』의 ‘독자문예란’은 ‘학생특집’ 기획을 방향 전환한 결과다. 『주간국제』 편집부는 피난문단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는 학생들을 주목하고, 제10호에서 ‘학생특집’ 기획을 시사한 바 있다.¹⁰⁵⁾ 시, 소설, 비평 분야에 걸쳐 원고모집을 했지만, 그 결과는 ‘독자문예란’ 신설로 갈무리된다.

(3)
빛도 없는 한 채의

104) 서울에서 유입된 피란학교에 집중된 제5호(1952.4.13.)에 비해 부산지역 학교는 제7호(1952.5.8.)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피란학교는 주소지 옆에 괄호를 넣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명을 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원지, 사찰, 목장, 채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광고』, 『주간국제』 제5호, 1952.4.13, 19쪽.

105) 『학생투고환영』, 『주간국제』 제10호, 1952.7.15, 34쪽.

塔이 남으면

그 부床위에
진하게 타오른 심장을 마신다.

斜陽에 먼 눈짓들이
이야기 못할
내일 하늘에 이름속이는

감현樹 그늘의
바람 없는 醉함에선

가루보의 대낮처럼

詩人을 만들 수 없는
애처론 거리가 들려온다.¹⁰⁶⁾

인용문 (3)은 ‘독자문예란’에 발표된 고석규의 시 『다방』으로, 시집 『청동의 관』에는 표현을 다듬어 수록되어 있다. 전망 부재의 현실에 부딪힌 시적 자아의 절망을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수사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모더니즘 시다. 부산대학교 국문학과에 재학 중에 발표된 초기 시로 ‘독자문예란’에서 이채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인으로 등단한 손동인이 자신을 독자로 낮춰 동요를 발표하며 어린이문학가로의 전환을 알리고 있다. 그 외에는 부산지역 학생들이 발표한 시들로 대부분 서정시 계열에 속하며, 윤재원만 애국시를 선보이고 있다.¹⁰⁷⁾

그럼에도 『주간국제』에 게재된 신인과 독자들의 작품들은 대부분 순수문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전 영남지역 동인지 활동

106) 고석규, 『다방』, 『주간국제』 제13호, 1952.9.27, 34쪽.

107) 윤재원은 이미 『국제신보』와 『부산일보』를 통해 애국시를 여러 편 발표한 바 있다. 이순욱, 앞의 글, 2006, 261-269쪽.

에 청문협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해온데다, 전시에는 순수문학 중심의 문단재편과 대표적 등단매체 『문예』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¹⁰⁸⁾

5. 결론

한국전쟁기 『주간국제』는 유일한 시사종합주간지였다. 비판적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주간매체로서 강력한 냉전적 반공주의 레짐과 언론통제, 그리고 요동치는 전시사회에서 일신한 면면을 보여주었다. 제18호로 중단되었지만, 발굴 자료에 기대어 『주간국제』의 자리를 살피고자 했다.

『주간국제』의 대중적 문화전략의 핵심 분야는 문학이었다. 창간호부터 제15호까지 『주간국제』에 게재된 문학작품은 총 73편이며, 『국제신보』 광고에 기대 제18호까지 확대하면 총 78편에 달했다. 한국전쟁기 위축된 창작계에 견준다면 상당한 문학적 자산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기 출판물의 중심에 여전히 문학이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주간국제』의 편집진이 문인이라는 점과 독자대중의 요구가 적지 않았던 점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은 『주간국제』의 문학란에서 문총의 핵심세력부터 원로 문인들, 문인언론인, 후반기동인, 그리고 신인과 독자들에 이르는 실로 피난문단의 여러 구성원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당시 문예지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문학주체들을 포괄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한 면면은 『주간국제』의 소재 문학작품에서도 피난문단의 다양한 문학담론을 전경화한 데서 확인 가능했다. 첫째, 반공국가주의에 준한 전쟁문학으로 반공문학담론을 양산하고 있었다. 반공이데올로기 선전전에 복무하는 전쟁시가 일부 있었다. 이미 ‘르포르타주’ 문학으로 간주될 만큼 전쟁문학에 대한 회의와 불안이 상존하는 가운데 김동리-이봉래의

108) 최미진, 앞의 글, 2021, 238~239쪽.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오히려 『주간국제』는 강제포로소환문제를 쟁점화한 수기집을 기획·발간하여 반공국가주의에 유리한 공론장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둘째, 『주간국제』의 소설계는 비교적 꾸준하게 작품이 게재되었음에도 기성의 창작태도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난생활을 다룬 소설에 국한해도 대부분 피난사회와 삶의 단면을 묘파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새로운 문학주체의 등장이나 문학의 다양성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작가의 비판정신을 찾기 힘들만큼 반공과 냉전의 금제 속에 순수문학의 제도화 파장을 정면에서 보여주었다. 셋째, 후반기동인은 피난문단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모더니즘 이론과 창작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전통의 확립에 나선 후반기동인은 서구 모더니즘문학의 수용과 시의 난해성 등을 두고 문단권력과의 논쟁을 거듭하면서 문학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었다. 넷째, 신인과 문학지망생 독자들은 피난문단의 활성화된 동인지활동과 연동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대부분 피난학교 학생들이었지만 새로운 문학형식과 장르에 도전하기보다 순수문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주간국제』는 피난문단의 지형과 변화를 다양하게 담아내고 이끌어갔던 매체였다. 독자대중의 대상과 성향을 특정하는 문예지와 구별된다는 점, 시사종합주간지로서 피난문단의 여러 국면을 포괄하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문학에 대한 독자대중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시사종합주간지에 걸맞은 문학적 대응을 오롯이 보여주는 셈이었다. 그렇기에 『주간국제』의 문학란은 독자적 문화적 지형을 창출하며 한국전쟁기 피난문단의 문학 활동과 문학담론을 새롭게 구축해나갈 수 있었다 하겠다. 그럼에도 발굴된 문학적 자산에 값하는 폭과 깊이를 섬세하게 살펴야 할 일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주간국제(週刊國際)』 창간호, 국제신보사, 1952.1.12.
『주간국제』 제2호, 국제신보사, 1952.1.24.
『주간국제』 제3호, 국제신보사, 1952.2.15.
『주간국제』 제4호, 국제신보사, 1952.3.31.
『주간국제』 제5호, 국제신보사, 1952.4.13.
『주간국제』 제6호, 국제신보사, 1952.4.26.
『주간국제』 제7호, 국제신보사, 1952.5.8.
『주간국제』 제8호, 국제신보사, 1952.5.27.
『주간국제』 제9호, 국제신보사, 1952.6.16.
『주간국제』 제10호, 국제신보사, 1952.7.15.
『주간국제』 제11호, 국제신보사, 1952.8.18.
『주간국제』 제12호, 국제신보사, 1952.9.5.
『주간국제』 제13호, 국제신보사, 1952.9.27.
『주간국제』 제14호, 국제신보사, 1952.10.20.
『주간국제』 제15호, 국제신보사, 1952.11.20.
『국제신보』 1950.1.1.-1953.12.31.

2. 논저

- 강경화, 「천상병 비평에 대한 고찰-1950년대 비평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62집, 우리문학회, 2019, 249~293쪽.
강호정, 「해방기 동인지 『죽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9집, 한국문
학회, 2015, 127~157쪽.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제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9~55쪽.

- 구상, 『중군작가단2년』, 『전선문학』제5호, 육군중군작가단, 1953.
- 국제신문사 사사편찬실 편, 『국제신문오십년사』, 국제신문사, 1997.
- 김경린, 『현대성의 경험과 모더니즘』, 강진호·이상갑·채호석 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17~49쪽.
- 김재두, 『정한숙 소설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2
- 김준현, 『한국전쟁기 문인들의 전쟁인식과 문예지』,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8집, 한국근대문학회, 2013, 373~401쪽.
- 김준현, 『한국전쟁기 잡지 『문화세계』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40권, 우리문학회, 2013, 431~458쪽.
- 나보령, 『피난지 부산에서 창간된 문예지 『신조』 해제』, 『근대서지』 제19권, 근대서지학회, 2019, 245~263쪽.
- 박몽구, 『모더니티와 비판정신의 지평』, 『한중인문학연구』 제19권, 한중인문학회, 2006, 395~428쪽.
- 백지혜, 『체험과 기억 사이의 조용만 소설』, 『한성어문학』 제35집,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2016, 113~136쪽.
-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 손상익, 『한국 신문시사만화사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5,
- 손혜민, 『잡지 『문화세계』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9집, 한국근대문학회, 2014, 61~84쪽.
- 송병선, 『라틴아메리카 증언문학의 시학과 하위 주체의 문제』,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7집,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4, 379~400쪽.
- 송창우, 『전쟁기 부산이 낳은 동인지 『신작품』』, 『지역문학연구』 제6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0, 211~251쪽.
- 신영덕,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 신영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 신정은, 『한국전쟁기 남북한 문학담론 기원 연구』, 『한국비평문학회』 제

- 73집, 한국비평문학회, 2019, 63~106쪽.
-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제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182~187쪽.
- 엄동섭·염철, 「새로 작성한 박인환 연보」, 『근대서지』 제8호, 근대서지학회, 2013, 667~702쪽.
- 오태호, 「조용만 소설에 나타난 1930년대 지식인의 자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제155호, 국어국문학회, 2010, 303~328쪽.
-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5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11~570쪽.
- 이봉범, 「냉전 금제와 프로파간다」, 『대동문화연구』 제107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89~143쪽.
- 이봉범,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 제17권, 상허학회, 2006, 235~272쪽.
- 이봉범, 「잡지 『신천지』의 매체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제39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0, 393~409쪽.
-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호, 동남어문학회, 2007, 173~205쪽.
-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과 동인지」, 『영주어문』 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121~156쪽.
-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시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257~291쪽.
- 이순욱, 「한국전쟁기 피란지 부산과 전시문학담론」, 『항도부산』 제41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117~142쪽.
- 장은영, 「증언의 시학: 역사에서 윤리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전남대 5·18연구소, 2011, 39~66쪽.
-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 조성훈, 『한국전쟁중 민간인억류자의 처리에 관한 연구』, 『군사』 제3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6, 283~312쪽.
-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 찰스 테일러, 이상길 옮김,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1.
- 최미진, 『매체 지형의 변화와 신문소설의 위상(2)』,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99~225쪽.
- 최미진,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발간과 매체전략』, 『로컬리티 인문학』 제25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207~248쪽.
- 최미진, 『『주간희망』의 도전과 매체전략』,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161~201쪽.
- 한정호,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 『영주어문』 제18집, 영주어문학회, 2009, 159~196쪽.
- 한정호, 『한국전쟁기 마산의 문학매체와 『낙타』』, 『인문논총』 제29권,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116~135쪽.

<Abstract>

Literature Activities and Literary Discourse “Weekly Kookje” during the Korean War

Choi, Mi-Jin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discourse by empirically researching literary activities corresponding to the media strategy of the “Weekly Kookje” during the Korean War. Literature was the core field of the popular cultural strategy of “Weekly Kookje”. From the first issue to the 15th issue, a total of 73 literary works were published in the “Weekly Kookje”, and when expanded to No. 18, the “The Kookje Shin Bo” advertisement reached a total of 78. In the literature section, several members of the refugee group, including core forces of Munchong, senior literary men, literary journalists, post-starters, newcomers and readers, participated.

Literature works as the subject matter of “Weekly Kookje” turned the various literary discourses of the refugee group into the foreground. First, it was mass-producing anti-communist literary discourse with war literature conforming to anti-communist nationalism. Although there were times of war that served in anti-communist ideology propaganda, the “Weekly Kookje” planned and published a collection of notes on the issue of forced recall of prisoners of war, building a forum for anti-communist nationalism. Second, the novel world of “Weekly Kookje” was only at the level of culminating in the section of refugee society and life even in novels

dealing with refugee life. It was hard to find the criticism of realism literature, and it showed the wave of institutionalization of pure literature in the face of anti-communist and cold war bans. Third, the late starters brought controversy to the evacuation paragraph and showed modernist theory and creative practice. Fourth, newcomers and readers of literary aspirations were invigorating new vitality by linking with the active fanzine activities of the evacuation group. Nevertheless, it had limitations that could not go beyond the scope of pure literature.

“Weekly Kookje” was a medium that captured and led the topography and changes of the evacuation section in various ways. This was because unlike literary magazines, it was easy to cover various aspects of the evacuation paragraph as a current affairs comprehensive weekly magazine. The Literature section of “Weekly Kookje” creates its own cultural landscape and makes the literary activities and literary discourse of the evacuation group during the Korean War a new meaning.

Key Words: Korean War, “Weekly Kookje”, “The Kookje Shin Bo”, literary discourse, refugees. Anti-Communist nationalism, Modernism Literature, Pure Literature,

■ 논문접수 : 2021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6일
■ 게재 확정 : 2021년 4월 20일